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바다.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을 잘 볼 수 있게 하거나 알아차리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상대방이 실제 모습을 숨기거나 과대 포장 또는 왜곡해서 생기는 문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보고 판단하는 사람의 조건, 즉 관점의 토대와 이해의 조건이 완벽하지 못한 것에 더 큰 이유가 있다.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는 것, 잘 안다고 말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다. 누구나 여러 종류의 한계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이 한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이해 능력의 경계이자 관점의 토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 닫아 건 안방이란 능력의 결핍과 편협한 시야의 한계가 그리 큰 문제가 될 이유가 없지만, 공격 영역과 사회적 관계 안에서 서려면 문제는 심각하고 그 후유증은 치명적이다.

우리 시야를 가로막는 대부분의 인식과 판단의 한계는 사회적인 학습의 결과다.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자들은 무기력을 안장함으로써, 정제된 인식 능력을 합리적으로 판단력으로 왜곡하는 나태함에서 생겨난 미망

모르는 것을 말하는 치명적 무지에 대하여

의 파편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무지와 똑같은 무지함을 보여 주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인식의 한계는 세상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주관적인 것들이다.

그렇기에 이 인식의 확장을 막는 장벽은 분노와 고통을 부르는 '넌사별'이 아니라, 다른 많은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장애물' 일 뿐이다. 이런 차단벽은 어떻게 설치되는가? 다른 전제와 맥락에서 말하고 있지만, 여기 매우 의미심장한 지점을 보여 주는 한 철학자의 주장이 있다.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해한다는 것은 우선 생각하고 판단하며 상황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 태생의 언어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1889-1951)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답을 찾는다. 그에 따르면 언어는 세계에 대한 그림이다. 우리는 세계에 대한 경험·인식·이해를 언어로 그려 낸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 표현한다고 해도 정확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 요즘에 "뜰방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간다"라고 말하면, 뜰는 사람은 가을의 들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이렇듯 언어는 세계에 대한 경험을 그려 내는 그림이며 화자가 생각하는 토대를 만드는 도구이다. 생각하는 과정이 언어적이라는 점에서 생각은 일종의 언어이며, 이 언어의 한계는 말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생각의 한계다. 몇 마디의 토막 난 동의어의 무한

반복, 뻔한 서사에 뻔한 결말은 아무것도 없는 그림이며, 빈 그림은 무의미하다.

이런 의미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한계의 특징은 사고의 부재, 대화에 대한 불신, 공유 가치에 대한 냉소, 자신의 힘에 대한 망상적 과신 등이다. 매끈한 논리와 현란한 수사 그리고 감정을 증폭시키는 키워드의 언어 표현 또한 '사이다 같다'라고 한들 빈 감정같은 한계를 드러내기는 마찬가지다.

우리의 언어 표현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뿐만 아니라 살고자 하는 세계의 미래상을 보여 주는 지평이어야 한다. 미래의 가능성을 그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언어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그려 낼 수 없다면 진보도 없다. 누군가의 언어에 무지와 무식만 가득하다면 그 의미를 묻고 의심하고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지가 만든 낡은 언어를 앞세워서는 세상은 결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자기모순과 감성을 시대적 요청으로 유혹하며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족쇄를 채우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말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잘 아는 개와 함께 있는 것이 낫다"고 일갈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 있을 듯하다. 덧붙여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표현의 행간을 읽자. 자신의 무지를 모른 채로 마치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말하는 순간 자신의 무지가 만들어 낸 초라하고 남루한 한계가 선명하게 드러날 뿐이다.

社說

민주당 경선 대세론 지속 반전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 지사가 어제 전북 지역 경선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열린 민주당 전북 경선에서 총 2만2276표를 얻어 54.55%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8.48%를 득표에 2위에 그쳤다.

누적 득표율을 보면 이 지사는 34만 1858표로 53.01%의 득표율을 기록, 이전 대표(22만2353표·34.48%)와 20% 가까이 격차를 벌렸다. 여기에 서울·경기 등 남부 지역 역시 이 지사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돼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앞서 이전 대표는 광주·전남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해 첫 승을 거두며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고 소감을 밝혔지만 그 '희망의 불씨'는 고작 하루 만에 사그라들고 말았다.

호남 출신인 이낙연 후보의 전북 경선 패인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전북의 표심은 상대적으로 광주·전남 지역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된다. 여기에 후보에 사퇴한 전북 출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던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도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대장동 개발 의혹'의 경우 민주당 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결집의 계기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어찌 됐든 민주당 경선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호남 대전' 2차전에서 이 지사가 승리함으로써 결선투표 없는 본선 직행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게다가 김두관 후보도 전북 지역 경선 결과 발표 직후 후보직 사퇴를 밝히며 이재명 후보를 공개지지, '대세론'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남은 경선 과정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반전 여부보다는 '정권 재창출이나 정권 교체'에 급격히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정권 재창출의 관건은 대장동 개발 의혹 해소와 '원전 경선'이 될 것이다.

외래 식물 범람 무등산 생태 교란 막아야

무등산의 외래 식물 서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사무소가 매년 외래 식물 제거에 나서고 있지만 번식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이다.

무등산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 1732종 중 외래 식물은 73종에 이른다. 이중 특히 문제가 되는 종은 환경부가 '생태계 교란 식물'로 지정된 돼지풀·애기수영·환삼덩굴 등이다. 여기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고유 생태계 피해도 등을 고려해 지정한 '우선 관리 외래 식물'로 나래가막사리가 있다.

이들 식물의 서식 면적은 전체 공원 면적 75.745㎢의 약 0.02% 정도다. 소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해당 식물의 무차별적 확산성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다. 이 때문에 국립공원사무소는 매년 수작업으로 제거에 나서고 있다. (2017년 1만 1100㎡, 2019년 1만 2520㎡, 올해 8월말 현재 벌써 1만 9940㎡) 아울러 외

래 식물을 제거한 자리에 병꽃나무·맥문동 등 주변 자생식물을 심는 생물학적 방제도 병행하고 있는데, 그 면적 역시 2017년 2200㎡에서 올해 8월 현재 3520㎡로 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외래 식물의 완전한 퇴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매년 300만 명 이상)의 의류·신발·자동차 등을 통한 인위적 전파는 물론 자연적 전파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강한 생명력과 질긴 번식력으로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 식물들을 적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다. 결국 비용과 인력을 들여 지속적으로 제거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자체 및 환경단체의 지원과 참여도 절실하다. 지역민들도 출입이 금지된 샛길 등을 이용할 경우 확산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지정 등산로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기고

대한의 시작은 우리의 마한으로부터



김영근
광주시 문화기반조성과장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환희와 기쁨을 안겼던 도쿄 올림픽. 시상대 위로 태극기가 오르며 대한민국이 호명될 때 자랑스러움과 감동을 느낀다. 우리나라를 예전에는 주로 한국이라고 표현했었는데 2002 한일 월드컵을 거치며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이 일상에서 자리 잡은 것 같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는 대한민국의 국호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고종실록 34년(1897년)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는 곧 삼한(三韓)의 땅인데 국초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지금 국호를 대한(大韓)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될 것이 없다'며 대한에 대한 고종의 언급이 확인된다.

여기서 삼한은 본래 마한, 진한, 변한을 뜻하는 말이지만, 삼국시대에 이르러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을 뜻하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이후 신라가 통일을 이루었을 때 '삼한일통'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과 왕건이 고려 개국공신에게 '삼한공신'이라는 칭호를 내린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전자에는 이미

'한'(韓)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념은 나라가 바뀌거나 국난의 시기에 구성원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으로 기능했다.

그렇다면 한(韓)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중국 위나라의 역사를 다룬 위략(魏略)과 삼국지 위서 동이전(三國志 魏書 東夷傳)을 살펴보면 그 역사는 고조선으로부터 확인이 된다. 연나라의 위만이라는 사람이 동이의 복장을 하고 고조선으로 망명했 후 고조선의 준왕을 속이고 정권을 탈취하여 고조선의 새로운 왕이 되었고, 쫓겨난 준왕이 바다를 통해 한(韓)의 땅으로 피한 후, 스스로 한왕(韓王)을 칭했다는 기록에서 기원전 194년 한반도에 이미 한(韓)이라는 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한(馬韓)은 크고 으뜸이라는 뜻을 지닌 '말'이나 '말'이라는 단어가 한(韓)과 합쳐져 '말한' '말한'으로 불리던 것이 말 마(馬)자를 차용하여 마한으로 표기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大韓)과 일맥상통하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근원에 마한이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광주의 마한 대표 유적은 마한 형성기와 소멸기에 해당하는 신창동 유적, 월계동 장고분, 명화동 장고분 등이 있다. 기원전 마한 형성기에 해당하는 국가 사적 신창동유적은 3중 환호 방어 시설, 세계 최대(最大)의 벼 생산 자료, 한국 최고(最古)의 비단과 방직 도구, 현악기, 수레바퀴 등이 확인된 고대의 첨단기술 복합단지(소국)였다.

6세기 마한 소멸기에 조성된 월계동 장고분과 명화

동 장고분은 당시 동아시아 각국이 각축을 벌였던 양상이 독특한 무덤 형태와 출토 유물에 투영되어 있다. 당시 광주·전남 일원은 온갖 사람과 물산이 모이는 문화 융합로였던 것으로, 같은 부침 속에서도 이 정체성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 광주만의 독특한 유전자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광주가 예항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근원이 역사 속 마한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역사 유전자는 광주·전남을 다시금 마한으로 결속하는 상생의 열쇠가 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마한 역사를 지역 정체성 확립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한 문화권 개발'을 광주·전남 상생 과제로 채택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추후 마한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마한인의 삶과 생활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광주 신창동유적 체험학습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생소할지도 모르는 고대 국가 마한은 백제인에게 땅을 내어줬던 넉넉함으로, 고조선 땅에 자리 잡은 중국 군현으로부터 한강 이남을 지켜냈던 방파제로, 고구려·백제·신라가 각축하던 삼국시대에는 지역의 정체성을 지켜낸 보루로, 근현대기에는 민족의 구심점이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유전자로 살아 남아 지금에 이르렀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민선 7기 광주시의 비전은 모두가 어울려 평화롭기 바랐던 마한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다시 광주로 돌아온 속명이라 생각한다.

기고

환경 변화에 따른 댐의 합리적 이용 방안 마련을



김대근
목포대 토목공학과 교수

최근 기후변화로 독일 라인강 범람과 천 년 만의 중국 홍수, 유례없는 폭염에 의한 북미의 산불 피해 등 기존에 겪어 보지 못했던 자연재해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홍수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최근 정부는 지난해 침전강감 하루 홍수 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하였다. 법·제도의 개선과 댐·하천의 통합 연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비한 홍수 관리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댐의 홍수 조절 용량과 용수 공급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확보된 홍수 조절 용량과 용수 공급량을 기반으로 운영 관리 체계까지 잘 갖춰야만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홍수 조절 용량 및 용수 공급량 추가 확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신규 댐 등의 건설은 사회적 합의 등의 문제로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기존 댐의 합리적 재배분을 통한, 변화하는 여건에 맞는 효율적 댐 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는 기후변화와 도시화, 산업화 등

며, 지난 8월 3일 정부 발표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침전강감은 200년 빈도인 다른 다목적댐과 달리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구조적으로 홍수 조절 용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홍수 조절 용량이 다른 다목적댐들에 비하여 부족함(합천 댐의 38%, 용담댐의 22% 수준)에도 불구하고 침전강감은 댐 사용권에 따른 배분량 설정으로 현 법·제도 내에서 홍수 조절 용량을 확대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침전강감은 건설 당시 댐 하류에 대한 기득수리권을 설정하지 않아 하천 유지 용량이 배분량으로 설정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댐은 유역 외 관개용수로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시화에 따른 농경지 면적 감소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댐 이용 체계의 마련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침전강 하류 재첩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적정 유지 용량의 확보 등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기존 댐의 재평가 및 합리적 재배분 시행을 위한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제도에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10년 단위) 등 법정 계획처럼 기후변화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존 댐의 재평가 및 재배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세부 방법론과 기준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댐의 재평가 및 재배분이 정기적으로 시행된다면 기후변화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는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국내외의 자연재해를 보며 이러한 법·제도적 장치가 하루속히 마련되고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조선은 국가의 안전과 왕권 강화를 위해 장자 계승 원칙을 견지했다. 세자는 보위를 계승하고 종묘사직을 보존해야 하는 중요한 존재였다. 국가적 대사였던 세자 교육은 태교를 비롯해 유묘 선발 및 유년기 인성 교육 등에 걸쳐 폭넓게 이루어졌다. 왕세자로 책봉된 뒤에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스승이 개인 교육을 실시했다.

조선 왕조 514년간 재위했던 왕은 모두 27명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정통성 시비가 별로 없었던 임금은 고작 10명뿐이었다. 어렵게 왕세자가 되더라도 보위에 오르지 못하고 중도에 낙마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양녕대군은 15년간 세자 직위에 있었지만 거친 행실 탓에 동생인 충녕대군(세종)에게 보위를 양보해야 했다. 병자호란 당시 중국에 인질로 잡혀 갔던 소현세자는 귀국 후 병마로 세상을 떠났다. 사도세자는 당시 격화된 정쟁과 부친 영조와의 불화 탓에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했다.

시대와 관점은 다르겠지만 오늘날 대통령의 아들들도 종종 현실 정치라는 정쟁에 휘말리곤 한다. 최근 국민의힘은 미디어아티스트 문준용 씨가 양구군청 예산으로 지

원금을 받은 데 대해 비판했다. "지자체·기관 등의 지원 과정에서 '대통령의 아들'이란 점이 작용했는지 국민은 궁금해 할 것"이라는 게 의혹의 요지였다. 그러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화예술계는 수백 년에 걸쳐 확립된 고유의 논리와 체제·관습이 있다"며 "국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열거한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조선의 세자들 중에도 뛰어난 예술인이거나 학문에 조예가 깊은 경우가 많았다. 양녕대군의 글씨, 소현세자의 선진 문물에 대한 안목, 어린 시절 사도세자의 학문적 자질 등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러나 이들은 정쟁과 시대적 불운에 휘말려 학문과 예술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말았다.

작가는 정치인이 아니다. '달걀 껍데기처럼 약해서 지켜 주어야 하는' 게 예술분야이며, 창의적 자율성은 결코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아티스트라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대통령의 아들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 잣대와 미학적 평가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오늘의 정치 수준이다.

/박성선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汝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연방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